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안드로이드 아이폰

국민권익위원회 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: 2026. 11. 17.(화) 15:30 배포: 2026. 11. 17.(화) 08:30

“회계부정, 안심하고 신고하세요!” 국민권익위-금감원,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회계부정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 관련 조사정보 공유 등 공조체계 마련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 기능 신설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연계로 신고 편의성 제고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와 금융감독원(원장 이찬진)은 오늘(17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□ 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. 그러나 신고자가 소속회사 등으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에 양 기관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▲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조사정보 공유, ▲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협조, ▲신고자 보호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협력 등을 통해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.

특히, 그동안 양 기관이 각자 접수·처리해 오던 회계부정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사건의 정보를 원활히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사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더불어,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자가 보다 쉽게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.

신고자가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 관련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,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시스템인 청렴포털과도 연계할 예정이다.

※ 금융감독원 회계부정 신고 메뉴 접속경로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회계부정 신고

□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"회계부정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."라고 말했다.

이어서, "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하여 조사하고,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"이번 협약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의 견고한 공조체계가 마련되어, 회계부정 신고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과	책임자	과 장	박지원 (044-200-7331)
		담당자	조사관	조수연 (044-200-7335)
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정주은 (02-3145-7292)
			수 석	안성민 (02-3145-729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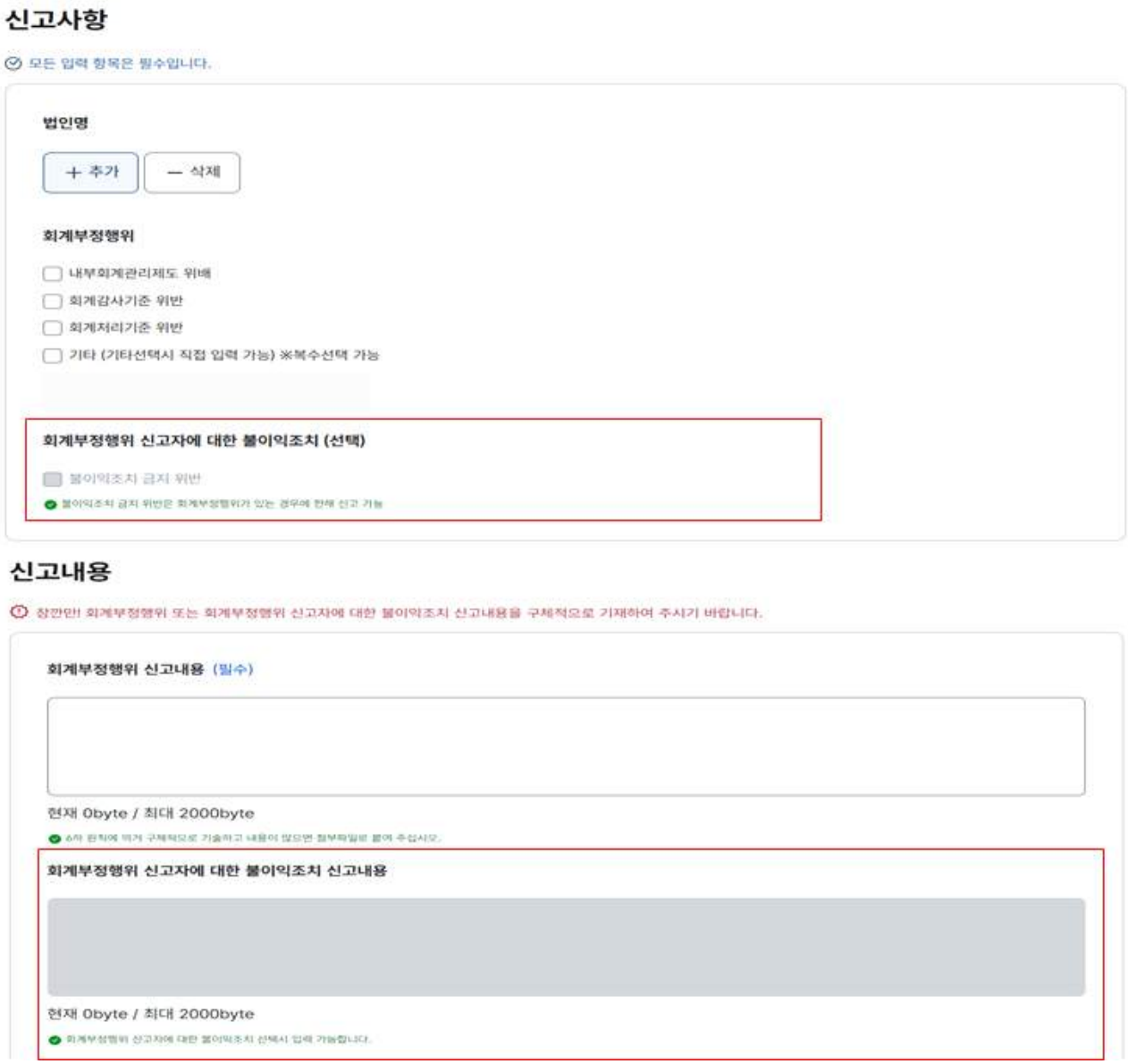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국민권익위#금융감독원#보호조치#불이익조치#업무협약#MOU
#정부서울청사#회계부정 신고자

붙 임 **금융감독원 「회계부정 신고」 홈페이지 개선 사항**

◆ 접속경로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회계부정신고

1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사항 신설



2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연계 신설

